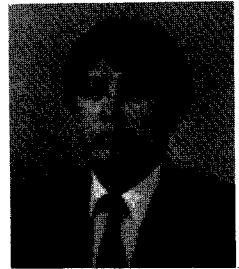


한국 양계산업의 변천과 발전방향



김정주

건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1. 머리말

한국의 양계산업은 지난 10년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우선 1981년에는 72백만수이던 닭 사육수수가 1990년에는 72백만수로 증가하였고 육계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일당중체량도 30.8kg에서 38.0kg으로 증가하였으며 산란계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산란율은 67.3%에서 72.7%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양계산업의 주변환경은 그렇게 희망적일 수만은 없다. 이미 정부는 1993년에 냉장 닭고기 수입개방을 허용하였으므로 외국 닭고기가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하고, 양계업을 하나의 공해발생산업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각종 생산자재 가격이 양등할뿐 아니라 계산물의 가격파동 진폭은 갈수록 길고 깊어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다.

한편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우루과이 라운드 가 어떻게 타결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농축산업 부문은 양계부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현재대로 아무런 노력없이도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기술향상과 함께 경영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난 10년동안의 양계산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한국 양계산업의 10년 성과

가. 닭의 사육동향

1900년 전후만 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사육된 닭은 재래종 일변도였으나 일본의 한국 침략과 함께 일본인들이 그들의 생계수단으로 개량종계와 종란을 가지고 들어와 사육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근대 양계산업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이때 전국의 총 닭 사육수수는 280만수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다.

1945년 해방후 6·25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한국양계는 수난시대를 맞았는데 통계자료조차 없어 정확한 보유수수를 모른채 1960년대의 기반조성을 맞게 된다.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닭의 사육에 노력한 결과 1960년말에는 1,200만수로 사육수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사양관리에 대한 최신 기술 보급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했었고 이에 부응하여 업체와 학계가 주축이 된 한국가금협회(현재의 대한양계협회 전신)의 창립을 보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양계업은 농민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으며 양계산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산성이 우수한 4원 교잡종의 종계가 도입되면서부터 양계산물의 생산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수요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과잉생산을 유발함으로써 가격을 크게 하락시켜 많은 농가가 도산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1988년에 2,600만수에 이르던 사육수수는 1975년에 2,100만수 규모로 오히려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육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양계산물의 수요가 급등추세에 이르자 닭의 사육수수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5년~1980년 사이에 2,100만수에서 4,000만수로 증가하는 이변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계산물의 유통은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도계육 유통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소비자가 보는 앞에서 도축하여 제공하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수집상의 기능에 의하여 양계산물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닭집에서도 도축을 강력히 규제하자 일부 상인의 반발도 없지 않았으나 행정지도와 소비자 교육으로 이제는 도계육 유통이 정착되기에 이르렀고 1991년 6월말 현재 전국에 208천호의 농가에 의하여 8,573만수의 닭이 사육되고 있다.

한국의 양계산업 생산구조는 지난 10년간 대규모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1981년부터 1991년까지의 총 사육수수는 규칙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꾸준히 증가하여 1981년 3월에 42백만수이던 것이 1991년 6월에는 85백만수로 증가

〈표1〉 닭의 사육현황

(단위 : 천호, 천수)

	사육농가수	총사육수수
1910	—	2,796
1915	—	4,278
1920	—	5,972
1925	—	6,120
1930	1,541	6,146
1935	1,650	7,117
1940	1,653	6,690
1945	—	1,518
1950	—	719
1955	1,123	8,923
1960	1,210	12,030
1965	1,320	11,893
1970	1,179	23,477
1975	1,094	20,939
1980	692	40,129
1985	302	51,081
1990	161	74,463
1991(6)	208	85,734

자료 : 축협중앙회, 축협조사계보, 1991, (8)

대한양계협회, 한국양계,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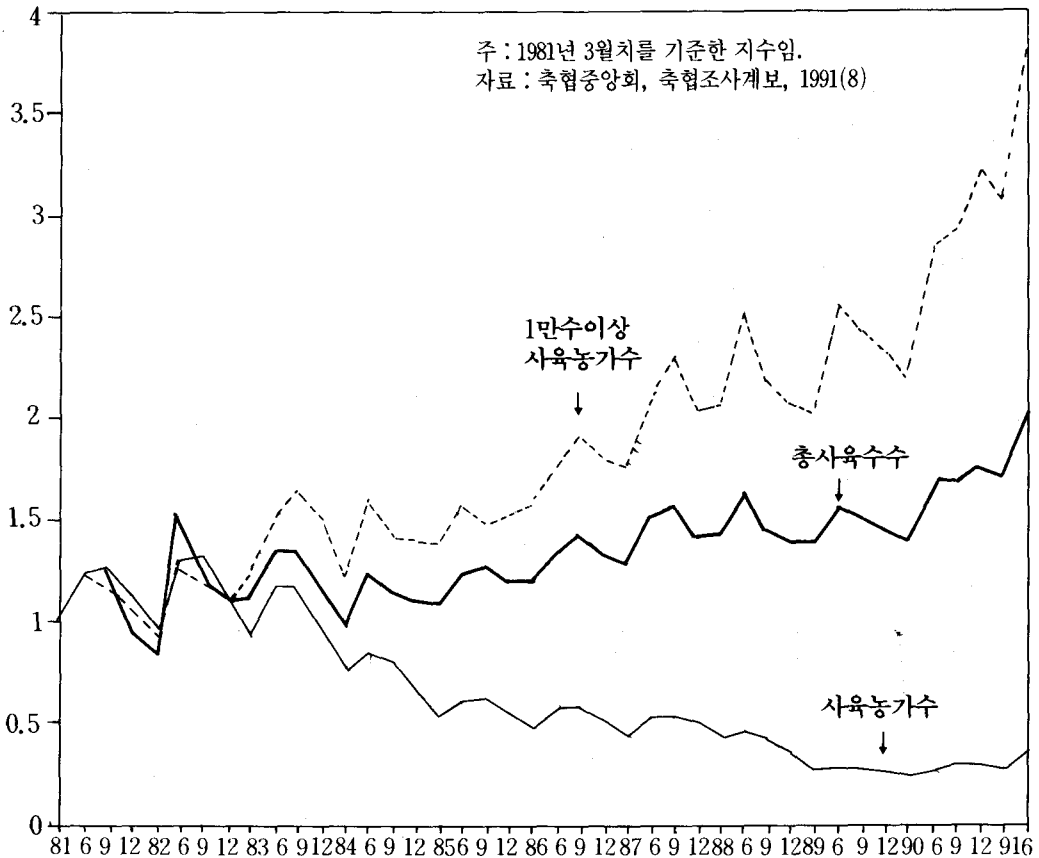
〈표2〉 닭 사육농가 호수 및 총 사육수수

	총사육 (천호) 농가수	총사육수수 (백만수)	1만수이상 사육농가수 (호)
1981(3)	552	42	700
1982(3)	541	40	598
1983(3)	524	47	853
1984(3)	425	41	858
1985(3)	300	45	962
1986(3)	264	51	1,109
1987(3)	236	54	1,224
1988(3)	230	60	1,436
1989(3)	148	57	1,429
1990(3)	121	58	1,536
1991(3)	208	72	2,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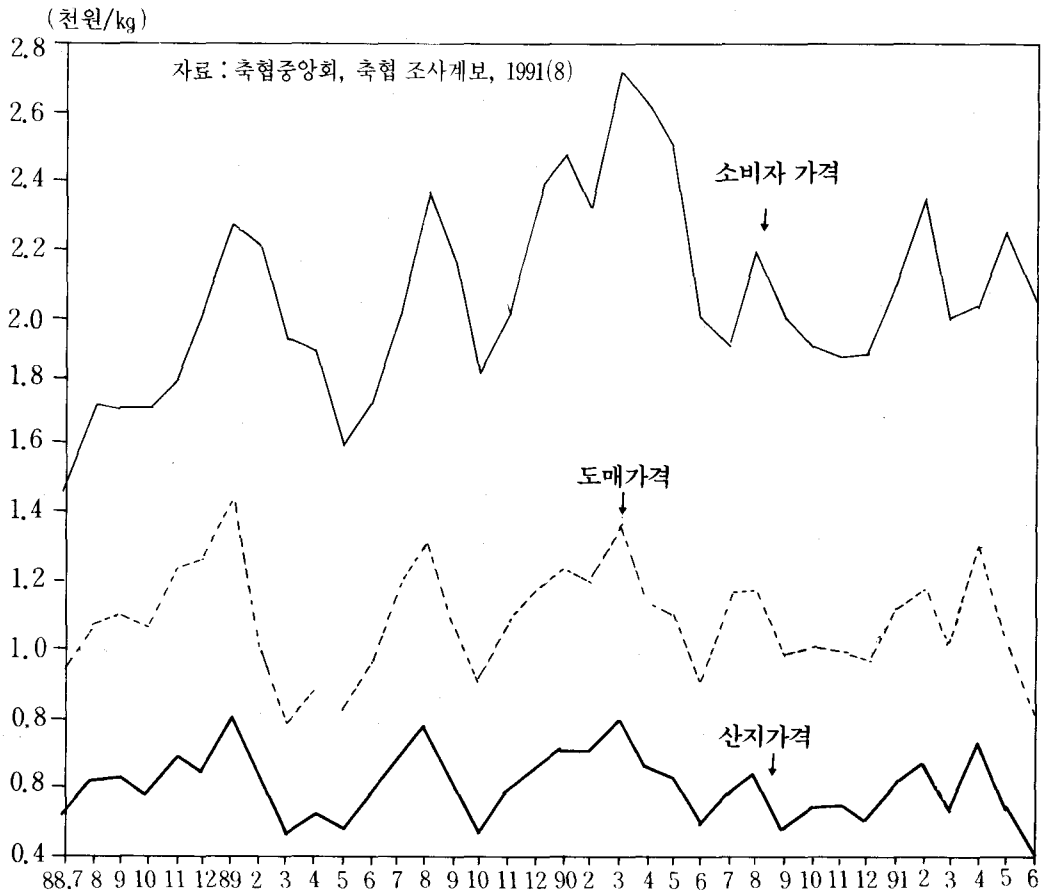
자료 : 축협중앙회, 축협조사계보, 1991(8)

하였다. 총 사육농가수는 같은 기간중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1981년 3월에 552천호이던 것이 1991년 6월에는 208천호로 감소하여 결국 호당 사육규모는 계속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1990년대에 들어 닭 사육수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로써 지난 여름에 겪은 닭고기 불황은 이러한 양적인 증대로 인한 후유증으로 판단된다.

한편 1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수는 1981년 3월에 700호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91년 6월에는 2,147호로 증가하여 사육규모의 대형화 현상을 입증하고 있어서 각종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비한 자구책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규모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닭의 사육규모 추이(1981~1991)



〈그림2〉 닭의 유통단계별 가격변동(1988.7~1991.6)

이상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1981년 3월의 자료를 기준한 해당자료의 지수를 계산한 것이 〈그림1〉에 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만수 이상의 규모 사육농가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총사육농가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일견하여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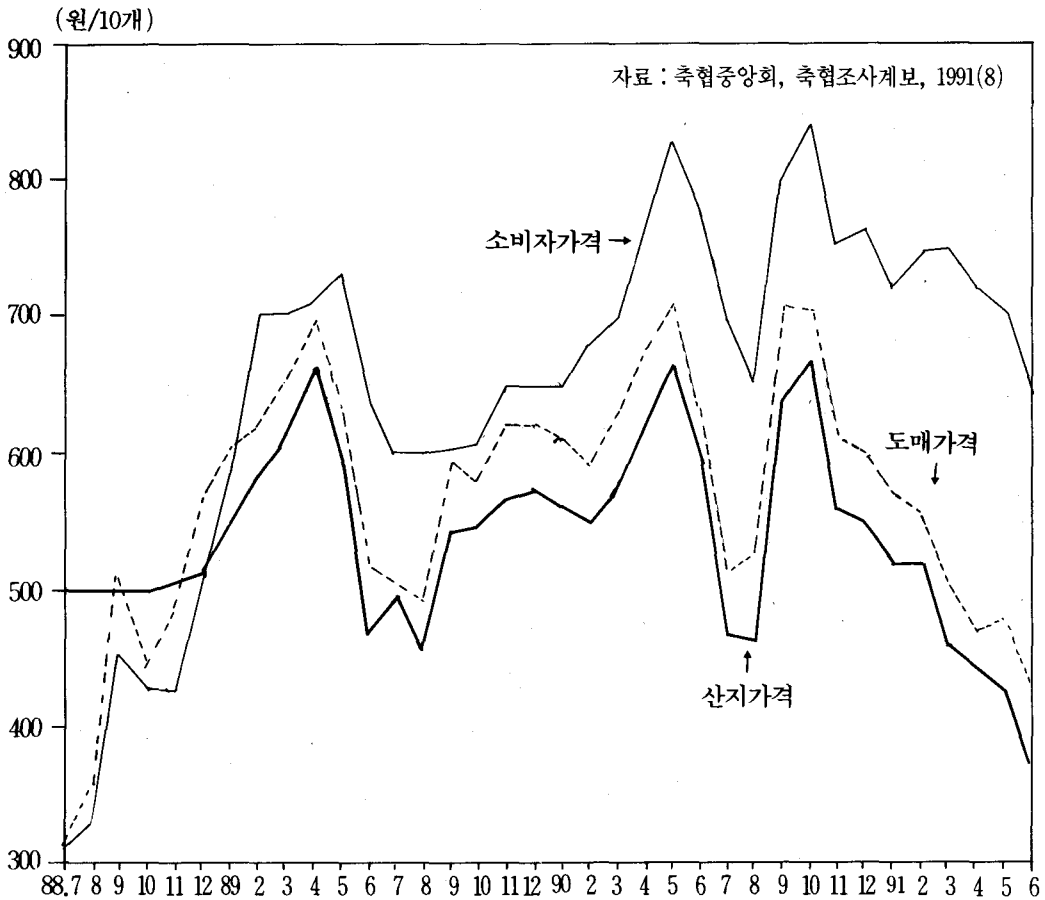
나. 닭 및 계란의 가격구조

닭고기는 종래의 부업축산에 의존하던 시절에는 산란계와 육계의 구분이 없이 소비되다가 산란계와 육계가 서서히 분리되면서부터 산란계와 육계의 관심 대상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생닭은 반드시 도계과정을 거쳐야 상품화될 수 있으므로 농가

수취가격과 소비자 가격간의 마진폭이 비교적 크다.

축협중앙회가 조사·발표한 닭의 농가 판매가격과 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것이 〈그림2〉이다. 이때 물론 농가 판매가격과 도매가격은 생닭 kg당 소비자가격과 비교하기 위하여 도계율을 60%로 가정하고 이를 계산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년 7월~1991년 6월까지 3년동안의 월별 가격은 2~4개월마다 거의 규칙적인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산지, 도매, 소매가격의 변동 모습이 닭은 꼴을 이루고 있어 유통단계별 가격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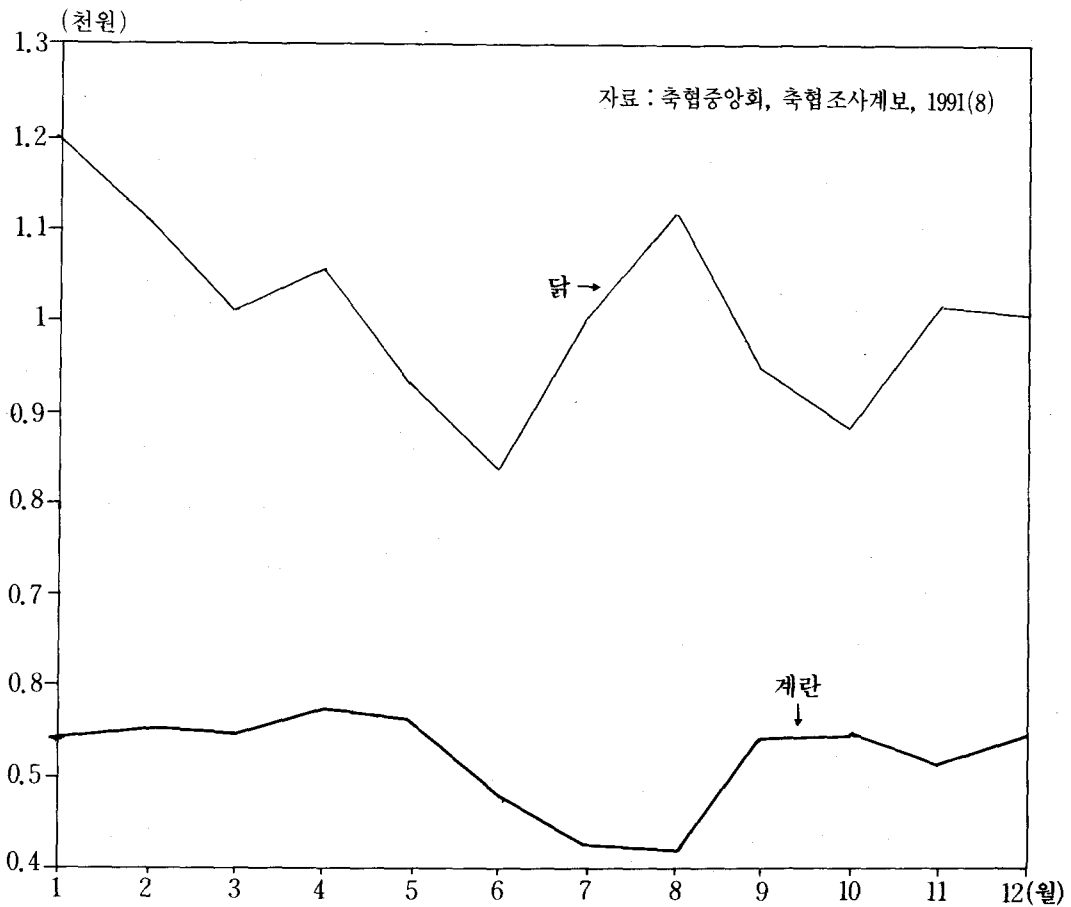
〈그림3〉 계란의 유통단계별 가격변동(1988.7~1991.6)

따라서 이러한 가격주기의 생리를 이해하고 이에 대처한 사육농가는 몰라도 그렇지 못한 농가는 소득증대면에서는 계속 '뒷북을 치는' 결과가 되었을 것으로 쉽게 이해된다. 그런데 육계의 사육은 연간 4~5회가 고작이므로 2~3회만 손해를 보아도 결국은 그 해의 손익은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 뻔한 일이다.

한편, 같은 기간의 월별 계란가격은 육계가격에 비하여 등락의 파장이 클뿐 아니라 변동의 주기도 불규칙적이며 산지, 도매, 소매가격의 변동 모습이 다소 난맥상을 보여 유통단계별 가격이 밀접하게 관련되지 못한채 다른 외생적 요인에 의하여 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닭과 계란의 계절별 가격변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1988년 7월부터 1991년 6월까지 3개년간의 평균 산지가격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그림 4〉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닭가격의 경우 계절변동이 심한 반면 계란가격은 계절에 따른 변동이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즉 닭가격은 1월에서 3월까지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에 잠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4월이 되면 소풍 등 들놀이에 닭고기 수요가 일시적으로 많아진 데서 연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닭가격은 다시 6월~7월까지 하락하여 바닥권을 헤매다가 8월이 되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삼복에 삼



〈그림4〉 닭 및 계란의 계절별 가격변동(1988.7~1991.6)

계탕의 소비가 급증하는 전통적 관습이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닭가격은 다시 10월까지의 하락하다가 찬바람이 일기 시작한 11월이 되면 평소 수준을 유지하여 다음해 봄까지 지속되는 계절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격변동의 패턴은 닭사육 농가로 하여금 병아리 입식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계란가격은 5월까지의 별다른 진폭이 없다가 6, 7, 8월의 여름동안은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여름동안 계란의 저장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만큼 소비가 감소되는데 연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란가격은 9월 이후 다시 상승하

여 평상시 수준을 유지한다.

다. 닭고기 및 계란의 수급

닭고기와 계란은 1980년 이래 자급이 달성되어 수급의 과잉에 따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유일한 육류 분야이다. 양계는 다른 축산물에 비하여 입식량의 조절이 보다 용이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981년 우리나라 총닭고기 공급과 수요량은 91.1천톤이었고 총육류 수요량중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수준에 달하였으나 10년 후인 1990년에는 공급과 수요에 따른 과부족없이 171.7천톤을 공급하고 수요되어 10년간에 88%가 넘는 증가를 보였으며 총육류 수요량중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

〈표3〉 닭고기 및 계란 수급상황

	수 급 량		육류합계 수요량 (천호)	닭고기중 육 류 (%)
	닭고기 (천톤)	계 란 (백만개)		
1981	91.1	4,431	398.7	22.7
1982	99.2	4,505	444.2	22.3
1983	119.9	4,936	531.1	22.5
1984	117.9	4,939	574.4	20.5
1985	126.2	5,390	598.6	21.1
1986	129.4	6,029	605.8	21.4
1987	140.7	6,573	674.9	20.8
1988	149.0	7,220	728.8	20.4
1989	154.9	6,919	784.5	19.7
1990	171.7	7,151	862.4	19.9

자료: 축협중앙회,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1991.

율이 20%로서 1981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육류소비중 돼지

고기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닭고기 소비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육류중 닭고기 소비의 비율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961년에 0.71kg에 불과하던 것이 1989년에는 3.7kg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미국의 31.0kg에 비하면 크게 못미칠 뿐 아니라 식성이 비슷하다고 보는 일본의 14kg과 비교하면 1/4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육류소비중 닭고기의 비중은 미국과 일본이 35% 수준인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 20%선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적육보다는 백육을 선호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스테미너 식품으로 알려진 영계백숙의 선호도는 증가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닭고기 요리의 편리함(편의성), 가족구성의 변화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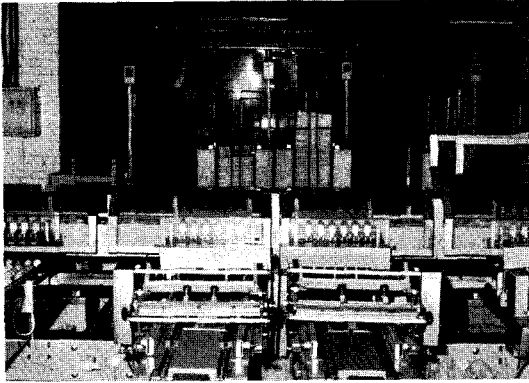
〈표4〉 육계 및 계란의 생산비 비교(1981년 대 1990년)

(단위: 원, %)

	닭고기(10kg)			계 란(10kg)		
	1981	1990	1991/1981	1981	1990	1981/1991
가 축 비	1,525	1,650	8.2	1,113	1,486	33.5
사 료 비	7,051	3,929	-44.3	6,451	3,700	-42.6
수 도 팜 열 비	175	116	-33.5	44	40	-9.1
방 역 치 료 비	163	129	-20.7	42	45	7.6
고 용 노 임	144	127	-11.5	99	199	101.0
감 가 상 각 비	73	123	68.3	49	84	71.4
기 타	206	159	-23.1	109	168	53.4
경 영 비	9,341	6,236	-33.2	7,910	5,724	-27.4
자 가 노 임	607	723	49.0	431	454	5.3
자 기 자 본 이 자	211	115	-45.4	391	297	-24.0
자기토지자본이자	39	23	-41.4	31	52	68.2
합 계	10,200	7,098	-30.4	8,764	6,528	-25.5
부 산 물 수 입	108	35	-67.8	119	673	463.2
생 산 비	10,091	7,063	-30.0	8,373	5,854	-30.1

주: 모든 가격은 1985년을 100으로 한 농가판매가격지수로 할인한 것임.

자료: 축협중앙회, 축산물 생산비조사 보고서 1991.



외식산업의 성장 등의 이유로 장래 닭고기 소비는 계속 증가하리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편, 계란도 같은 기간중 수급에 따른 과잉, 과소의 문제가 없이 자급달성이 가능하였다. 즉 1981년에 4,431백만개이던 수급 규모가 10년후인 1990년에는 7,151백만개로서 61%의 증가를 이룩하였으나 닭고기에 비하여 다소 저조한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89년에 일본과 소련은 각각 280천톤과 165천톤의 닭고기를 수입한 바 있으며 이러한 수입 물량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본과 개방을 단행한 소련의 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산업으로서 육계산업이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라. 양계산업의 경영성과

기업경영의 기본원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을 것이므로 양계부문도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에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그 규모가 영세하고 노동력위주의 사육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요소의 자급달성부분이 많아 정확한 생산비의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경영성과를 기업간 또는 시차를 두고 비교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1981년과 1990년의 축협중앙회 축산물 생

산비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10년에 걸쳐 양계산업의 경영성과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우선 육계의 경우 일당 증체량은 1981년에 30.8kg이던 것이 1990년에는 38g으로 23.4%의 증가를 나타냈고 폐사율은 6.9%에서 4.2%로 감소하여 2.7%나 하락하였고 평균사육일수는 62.0일에서 48.2일로 단축되어 결국 양계부문은 10년전에 비하여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981년과 1990년의 육계 생체 kg당 생산비와 소득을 비교한 바 1981년에 비하여 30%정도가 감소되었고 닭의 산지 실질가격이 27.7% 정도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7%정도의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육계의 kg당 생산비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1981년과 1990년을 비교한 결과 가축비, 감가상각비, 자가노력비 등이 1981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나머지 항목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가상각비는 68%가 증가한 반면 사료비와 자기자본이자는 각각 44.2%와 45.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물론 1981년과 1990년의 물가상승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농가 판매가격 지수로 모든 가격을 할인(depreate)하였다.

다음으로 계란의 경우,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 이룩한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즉, 1981년에 67.3%이던 산란율은 1990년에 72.2%로 상승하여 무려 4.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육성계 육성율도 같은 기간동안 92.3%에서 97.9%로 5.6%가 또한 계란의 개당 평균 무게는 같은 기간동안 56.9g에서 60.5g으로 3.6g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일반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치이므로 경영주의 능력에 따라 생산성 향상에는 많은 여지가 있음을 간접으로 시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력만 한다면 양계부문의 기술적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산성 향상의 결과 채란계 사육의 경영성과도 육계에 못지않게 호전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1981년과 1990년을 비교한 결과 생산비는 27.9%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조수익은 17.4%의 상승을 보여 결국 9배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서 유독 불황이 있었던 연도의 수치를 가지고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채란계부문의 경영성과는 호전되어 가고 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계란 10kg당 생산비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같은 기간을 비교한 결과 고용노임, 토지자본이자, 감가상각비, 가축비 등은 각각 101%, 68%, 53.4%, 33.5%, 27.6%씩 감소하여 결국 생산비는 30.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승한 항목을 보면 현재 농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노동력 부족, 토지가격 상승, 물가상승 현상 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81년에 비하여 1990년에는 사료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사료가격이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상의 분석에서도 축협중앙회가 조사 발표한 명목 가격 자료를 농가 판매가격 지수로 할인하여 물가상승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였다.

2. 생산 및 유통의 통합(계열화) 사업을 통한 양계산업의 발전방향

현재의 일반적인 산업은 각 부문이 개별 경영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독립된 개별 경영체는 각자의 영역에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에 생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마다 이윤이 부과되면 당연히 최종소비자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타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이므로 생산과 유통 및 판매를 하나의 경영체로 하여금 총괄 관리케 하는 통합(계열화)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대기업의 계열회사 같은 것이다.

한편, 농업도 산업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종래와는 달리 다른 산업과 연관을 맺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생산 활동 그 자체는 물론 생산자재의 구입, 생산물의 저장, 가공, 수송, 판매를 유통의 전단계를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묶어서 생각하는 “애그리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 요구와 함께 농업문제가 극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표5〉 닭 및 계란 생산의 경영성과 비교 (1981년 대 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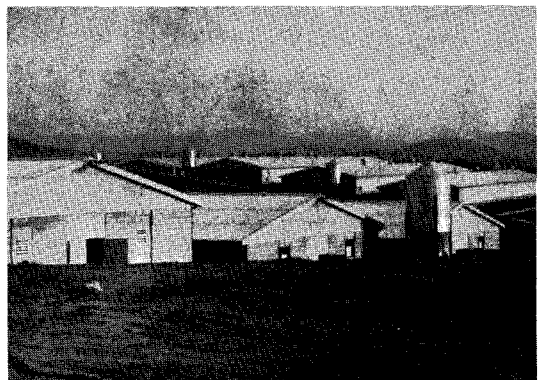
(단위 : 원, %)

구분		연도	1981년	1990년	1990/1981
육	생 산 비		1,009	706	-30.0
	산지가격		1,044	754	-27.8
	조 수 익		1,936	1,386	-28.4
계	소 득		153	242	58.2
계	생 산 비		491	354	-27.9
	산지가격		421	414	-1.6
	조 수 익		10,654	12,512	17.4
란	소 득		-405	3,386	936.0

주: 모든 가격은 1985년을 100으로 한 농가 판매가격 지수로 할인한 가격임

주: 육계의 생산비, 산지가격은 kg당, 조수익, 소득은 마리당이며 계란의 생산비 산지가격은 10개당, 조수익, 소득은 마리당임

자료: 축협중앙회, 축산물 생산비 조사 보고서, 1991.



종래 중산위주의 농업정책만으로는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생산과 유통을 하나로 묶어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농업생산 및 유통의 통합(계열화) 체계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통합(계열화)체계가 양계산업에 필요하게 되었는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업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농업분야에 종사할 노동력이 부족하고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양계부문으로의 노동력 유입은 점차 막혀가고 있어서 지금까지 자가 사료공장, 도계장, 부화장, 종계장 등을 보유하고 대단위 양계에 참가하고 있던 기업적 대규모 양계 생산업체는 노동력 조달이 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미 투자된 각종 시설이나 기자재를 다른 부문에 활용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며 고용노동력에 의한 생산관리는 그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환경공해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양계산업이 공해 유발원으로 서서히 성토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어서 결국 기업적 대규모 양계는 갈수록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소규모의 양계 농가는 가격변동의 원인으로 경쟁에서 점차 도태되어 대책없이 생업의 발판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서도 농촌노동력 부족 현상은 여전하여 경영주가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시장정보에 어두어 생산자재의 구입이나 생산물의 판매면에서 더욱 불리해지므로 더욱 많은 중소규모 양계 농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농가는 양계 사육시설과 기술축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도 치열한 경영 전쟁에서 이겨낼 능력이 없을뿐 아니라 장기 불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본조달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여기에서 자본

조달 능력과 경영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육을 담당할 노동력 조달이 어려운 기업과, 사육시설과 기술 및 노동력은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본조달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사육농가를 접목시키는 일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려는 양계산업의 통합(계열화)체계의 기본 골격이다. 따라서 양계의 통합(계열화) 사업은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여 생존하려는 공생공존의 필사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경영능력이 뛰어나고 자금동원 능력이 어느 정도 구비된 중규모 이상의 양계 사육농가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이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나, 그렇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서 통합사업은 필요 불가결할 것이다.

계열화사업은 이러한 국내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UR협상내용과 한국정부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계획을 종합해 보면, 한국에 닭고기 수입자유화는 목전에 와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절프전에서의 승리에 힘입은 미국이 UR협상에서 보인 강경 자세라든지 농업 보조금 협상에서 지금까지 강경자세를 보이던 E·C가 내부사정으로 태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미질단 신선 냉장 닭고기와 절단 신선 냉장 닭고기를 1993년과 1994년까지 각각 수입 개방하겠다는 한국정부의 계획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냉동 닭고기가 수입개방될 경우 미국 닭고기 농장가격을 기준하여 2배에 가까운 한국의 양계산업이 아무런 대책 없이도 존속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생산기술 혁신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획기적인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최종생산물의 가격인하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자연히 경제통합체



계의 도입이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도 양계통합체계 도입의 당위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합(계열화) 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경제통합(계열화) 체계에서는 경영전체를 하나의 경영주체가 종합적으로 주관함으로써 여러가지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윤의 중심점을 단일화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단독경영에 비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육계계열화사업에 대한 필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계열화사업을 통하여 단독경영에 비하여 생닭의 경우 평균 17.8%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도계육의 경우는 평균 24.5%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닭고기요리(양념통닭이나 후라이드치킨)를 최종 소비재로 간주할 경우도 평균 32.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닭고기의 수입이 자유화되어도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통합(계열화) 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선, 생산을 담당하는 농가가 통합(계열) 주체에 예속되어 마치 봉건시대의 소작제도가 부활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

사육자 단체나 협동조합이 경영을 주도할 경우 이들이 기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점,

계열 주체와 사육농가간의 분쟁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 등 다양하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체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학계의 실증적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양계**